# 미-러 안보갈등 '신냉전' 치닫나

## 러시아 "美 MD 무력화" 새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 동유럽 MD 구축 싸고 동·서 관계 20년만에 최악

러시아는 29일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고안된 신형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으며 전술 순항(크루즈) 미사일 발사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제1부총리는 "러시아는 오늘부터 기존의 또는 미래의 어떤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극복 가능한 신형 미사일(RS-24)들을 갖추게 됐다"고 호언, '어떤 미사일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해 온 부시 행정부와 '창과 방패(矛盾)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날 "동유럽 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은 유럽을 '화약통'으로 만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또 유럽관계의 총체적 시스템에 불필요한 새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28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약(CFE) 가입국들에 6월중 특별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러시아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에 MD체제를 구축하는 미국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며 MD 도입 강행시 CFE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푸틴 대통령과 호전적인 이바노프 부총리, 외무부의 줄이은 경고 발언은 미국이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 동유럽 MD 구축을 강행할 방침을 천명한 뒤 계속돼 왔으며 ICB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지 인터넷판은 30일 러시아가 미 MD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ICBM과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발표, 미국과 '신냉전 양상의 군비경쟁'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동유럽 MD 문제로 러시아와 서방세계가 옛소련 붕괴 후 20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CFE 문제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중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조약 비준 때까지 러시아는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폭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29일 러시아가 CFE특별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1990년 체결돼 1999년 개정된 이 조약의 이행에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바노프 부총리가 ICBM에 대해 "어떤 미사일 방어망도 관통할 수 있다"고 호언한 것은 미국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MD 구축을 위해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득해왔다는 점에서 '한비자'에 나오는 '창과 방패(矛盾') 고사를 연상시켜준다. /연합뉴스

# "BDA 해결 위해 돈 세탁 제재 중지 가능"

## 美, BDA 경영진 교체 전제…中 역할 관건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0일 베이징에서 중국관리들과 회담하기 위해 호텔을 떠나기 앞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자국 재무부가 발표한 BDA에 대한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 철회도 가능한 여러 방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신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BDA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며 BDA 경영진 교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 중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중국측 당국자들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협력할 경우 BDA 문제 해결방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6자회담 프로세스가 조만간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은 BDA 문제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거의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면서 "이 방안에는 지난 3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BDA에 대한 돈세탁 금융기관 최종지정을 철회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재무부가 제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BDA 경영진 교체는 물론 적극적인 돈세탁 방지 노력 등 금융거래 투명화를 위한 노력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29일 인도네시아에서 BDA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고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핵 시설 폐쇄를 위한 사찰단 방문을 먼저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소식통은 "힐 차관보의 입장은 BDA 해결 약속과 핵시설 폐쇄 협의를 '말 대 말' 원칙으로 하고 이후 실제 BDA 송금해결과 핵시설 폐쇄 조치를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의 지붕 위를 달리는 사나이** 지난 1953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8,848m)에 오른 셰르파 텐징 노르게이와 에드먼드 힐러리경의 등정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텐징·힐러리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가 29일 네팔 솔루쿰부 해발 4,500m의 고지를 달리고 있다. /신화AP=연합뉴스

# "새 온실가스 규제안 2009년내 매듭"

## ASEM 외무 합의

유럽과 아시아의 외무장관들이 29일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2009년 시한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유럽(ASEM) 외무장관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일단 새 기후협약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같은 시한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외교관들은 교토 기후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2012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오는 2009년 시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목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EU는 중국 또는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부국들과 똑같은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나눌 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브뤼셀=연합뉴스

# "골든로즈호·진성호 모두 안갯속 부주의 운항"

## 중간조사 결과 발표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와 우리 화물선 골든로즈호 모두 안갯속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성호 선장은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부터 25일까지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중국 현지 조사를 벌인 해양수산부 조사단장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종의 심판관은 30일 해양수산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심판관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40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했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는 등 안갯속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항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두 선박의 항적을 기록한 자동확인시스템(AIS) 자료를 보면 골든로즈호와 진성호 모두 안갯속인데도 속력을 거의 줄이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한 속력을 유지한 것으로 봐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했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 "히말라야 비아그라 때문에…"

## 약용 식물 채취 나선 네팔 주민 16명 사망 수백명 실종

히말라야 산맥에서 약용 식물 채취에 나섰던 네팔 주민들이 폭설을 만나, 이 가운데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실종됐다고 IANS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네팔 내부무는 북부 돌파지구에서 걸어서 나흘이 걸리는 카히가온 마을에서 히말라야의 비아그라로 불리는 '야르샤굼바' 채취에 나섰던 주민들이 폭설을 만나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28일 밤에 내린 폭설이 주민들의 야영지를 덮치면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며 "그러나 워낙 오지여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헬기만 보냈을 뿐 아직 경찰이 현지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야르샤굼바는 네팔 북부 오지의 해발 4천m 이상 고지에서 나비 유충 등에 기생하는 균류로 '박쥐나방 동충하초'로도 불리는데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야르샤굼바 생산량의 50%를 공급하는 돌파 지구는 고대 인도와 티베트간 교역로로 활용됐지만, 현재는 도로가 없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지다. /연합뉴스

# 세계은행 새 총재에 로버트 졸릭

## 부시 지명…국무부 부장관 등 역임

부시 미 대통령은 로버트 졸릭 전 국무부 부장관을 최근 사임을 발표한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 후임자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외신들이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30일 졸릭 전 부장관의 세계은행 총재 지명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며 세계은행 집행이사회는 이를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

졸릭 전 부장관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역임했으며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뒤 작년 6월 행정부를 떠나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에서 일해왔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졸릭 전 부장관의 세계은행 총재 지명에 대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 日 아기울음소리 6년만에 늘었다

일본의 출생률이 6년만에 상승하며 1.3대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출생률이 지난 2005년에는 1.26으로 떨어졌으나 2006년에는 0.6포인트가 상승한 1.3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1.3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은 다음달 초순 이 같은 출생률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